

Jinu Nam has a craving for the mysterious mollusk, Giant squid, or the sea monster Kraken, the ancestor of it. He also enjoyed watching the animations starring robots, and in this kind of hero series usually consists of good and bad characters. The good character is usually portrayed as a beautiful person, but the bad character often has a strange appearance. Nam's work is about a being that has become a 'monster' in a world where justice does not apply. He creates his own kingdom full of Giant squid and expresses it in bright colors. He also borrows the style and structure of the medieval illustrations from the bible that have clear structures of good and evil. Heroes in his work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angels and demons, revealing an unclear boundary between goodness and evil. His work is about hopes to save himself in an absurd world.

남진우는 기묘한 형태를 가진 연체동물인 대왕 오징어, 혹은 그것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바다 괴물 크라켄을 오랫동안 동경해왔다. 또한, 로봇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즐겨보았는데, 이러한 히어로물에서 대개 줄거리는 착한 편과 나쁜 편의 대립으로 이뤄진다. 착한 편은 주로 아름다운 외형을 갖춘 인간이라면, 나쁜 편은 괴기스러운 모습이었다. 남진우의 작업은 정의가 작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괴물'로 내몰리게 되는 한 존재에 관한 서사시이다. 그는 대왕오징어로 가득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밝은 색채로 표현하는데, 선과 악의 구조가 명확한 중세시대의 성서 삽화 이미지의 양식과 구조를 차용하기도 한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영웅은 주로 천사와 악마의 이미지의 특성을 모두 갖추어 선함과 악함 사이의 불분명한 경계를 드러낸다. 그의 작품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원해 나가고자 하는 희망에 관한 것이다.